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ers' Specialization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

김현정* · 유광민** · 김남조***

Kim, Hyun-Jung · Yoo, Kwang-Min · Kim, Nam-Jo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lassify camper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recreation specialization level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PEB) amongst the sub-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pecialization stage of domestic campers, and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categories of high, medium, and low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ir single specialization Ind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veral factors of PEB among three groups. The high specialization group uses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separates waste, and prepares for camping in advance, compared to the low specialization group. This study proposes that recreation specialization can be a useful theoretical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a recreationist's PEB, and that providing differentiated marketing and educate programs, according to the level of specialization, is needed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planning of a camping ground.

핵심용어(Key words) :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
친환경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ur),
캠핑객(Camper)

* 본 연구조사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2S1A5A2A03034718)에 의해 수행되었음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수료. e-mail: hjhj2545@naver.com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연구교수. e-mail: ykm4458@hanmail.net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njkim@hanyang.ac.kr

I. 서 론

가족단위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캠핑장이 조성되고 있고 이용객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캠핑시장은 2009년 1,000억 원대에서 2013년 5,000억 원대까지 확대되었으며, 캠핑인구 역시 2013년 기준 130만 명으로 2010년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이데일리, 2014년 1월 16일자). 이와 같은 캠핑시장의 급성장은 대체휴일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캠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캠핑객들로 인한 자연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말에는 하루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캠핑장 환경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홍천강에 위치한 소남이섬의 캠핑장은 자연훼손이 심각하여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3년 6월 11일자). 이에 따라 캠핑객들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캠핑장 기획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캠핑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캠핑객들의 친환경적 행동을 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캠핑객의 친환경행동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수준과 친환경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캠핑여가에 대한 전문화 수준은 친환경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화와 친환경적 지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문화 수준이 증가하면 환경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이 증가된다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Bryan, 1977; McFarlane, 2004; Katz, 1981; Mowen, Williams, & Graefe, 1997; Thapa, Graefe & Meyer, 2006).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증가되어 자연환경을 더욱 인식하게 되며, 증가된 지식과 기술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Dunlap & Heffernan, 1975; Townsend, 2000; Thapa, 2000 재인용). 전문화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환경태도 및 환경의식은 친환경 행동과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으므로(Armitage & Conner, 2001),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캠핑장에 전문화 수준이 다양한 캠핑이용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전문화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친환경 행동관리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Bryan(1977)이 좋은 관리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문화 연구가 개인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친환경 행동과 전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캠핑객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어떠한 하위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집단 간 친환경 행동에 대한 차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캠핑객들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캠핑객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며, 집단별 특성을 밝힌다. 또한 전문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하위그룹 간 친환경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본 연구 결과는 캠핑이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국내 캠핑객의 전문화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전문화 수준에 따라 캠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al Specialization)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란 Bryan(1977)이 제시한 개념으로, “스포츠에 이용된 설비와 기술 및 활동환경 선호도에 반영되는 일반적인 행동부터 특정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연속체”를 의미한다(Bryan, 1977; p.175). 연속체의 범위는 제한된 참여를 하거나 활동에 단순한 관심을 보이는 초보자들로부터 활동에 더욱 헌신하고 지식이 있으며 기술이 숙련된 개인까지 이른다. Bryan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참여자들이 점차적으로 특정 활동에 헌신하게 되는 발전 과정(development process)로 보았으며,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은 한 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수록 더욱 전문화된 단계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화의 다음 단계로 진보하게 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동기, 자원선호, 관리실천(management practice)에 대한 태도, 불만족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반응이 바뀌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기획 및 관리에 유용한 개념이다. Wellmam *et al.*(1982)은 전문화의 분류 체계가 합리적이며 간단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화 이론이 강화이론과 같은 탄탄한 기초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전문화 이론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선호, 동기, 태도와 같은

변수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레크리에이션 기획과 관리에 기여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개념화, 측정방법, 유용성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전문화 개념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송영민, 2010; Bryan, 1977; Kuentzel & McDonald, 1992; McFarlane, 2004). 행동적 차원은 한 가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강렬하게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경험횟수, 참여빈도, 방문한 장소의 수, 사용한 장비 유형, 구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양, 금전적 투자, 활동참여를 위해 이동한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행동적 지표들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지적 차원은 전문화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전문화는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얻거나 정제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수반하므로 기술발전 및 지식습득 노력 역시 측정된다(Scott & Shafer, 2001). 마지막으로 정서적(심리학적) 차원은 인생에 있어서 활동의 중요성과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애착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전문화의 행동적 차원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McIntyre & Pigram(1992)는 “상호간 증가(reciprocal increase)”라고 언급하였다(p.4).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세 개의 전문화를 측정하는 차원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현정·김남조, 2011; McIntyre & Pigram, 1992), 일부 연구(Scott & Shafer, 2001; Kuentzel & McDonald, 1992)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친환경 행동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ur)은 넓게는 최대한 환경적 피해가 적은 행동 혹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의미하며(Steg & Vlek, 2009; Stern, 2000),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은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Sivek & Hungerford, 1990). 친환경 행동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주로 그 영향요인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환경태도, 환경의식, 환경신념, 환경지식, 규범, 가치, 지각된 통제력, 인구통계학적 변인, 감정 등과 같이 친환경 행동 또는 의도의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과, 주로 실험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특정 자극변인(교육, 광고 등)을 통해 개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행동변화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연구들은 일상에서의 친환경적 소비행동 및 구매행동, 에너지 절약행동, 쓰레기 배출행동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관광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행동으로의 변화가 촉구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들은 관광객의 목적지 이동수단 선택(Hares, Dickinson & Wilkes, 2010; Hergesell & Dickinger, 2013), 숙박시설 내 절약행동(Goldstein, Cialdini & Griskevicius, 2008), 관광목적지 내 친환경 행동(윤현희·이진호, 2013) 등 관광 활동 중에 이용하게 되는 시설과 관련된 친환경 행동을 다루고 있으며, 이 외에는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고동우, 2006; Halpenny, 2010; Wynveen, Connally & Kyle, 2013), 스쿠버다이빙(Thapa, 2010), 보트(Cotrell, 2003)와 같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대해 다루어 왔다.

관광 분야의 친환경 행동 연구들도 타 분야와 유사하게 환경태도, 환경신념, 환경지식, 가치와 같은 친환경행동을 결정하는 변인에 대해 탐구해 왔다. 고동우(2006)는 국립공원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통하여 관광자의 환경태도와 행동에 대한 환경광고의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Wynveen *et al.*, (2013)은 VBN(가치-신념-규범) 이론을 적용하여 해양보호수역에 방문한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의 친환경 행동의도를 연구하였다. 한편, 관광 분야의 친환경 행동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관광 목적지가 지니는 특징으로 인한 장소애착심(Place Attachment)(윤현희 외, 2013; Halpenny, 2010)과 관광객 또는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특징으로 인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Thapa, 2010) 등이 있다.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환경태도가 소비주의적 관점에서 환경보호 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ryan(1977)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낚시꾼들에게는 소비주의적 관점이, 더욱 경험이 있는 낚시꾼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 보다 자연과 환경이 더욱 중요한 환경보호 주의적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cFarlane(2004)과

Chipman & Helfrich(1988)의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의 전문화 진행에 따라 태도가 소비중심적에서 보존지향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McFarlane(2004)의 연구에서는 더욱 전문화된 참여자들이 관리 개입이 적은 자연적인 조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Chipman & Helfrich(1988)의 연구에서는 더욱 전문화된 낚시 참여자들이 자원보호를 위한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관계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연구에서부터 전문화의 단순화된 개념인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 변수로 측정되어 밝혀진 바 있다. Dunlap & Heffernan(1975)의 연구가 그 중 하나인데, 그의 연구에서 반복되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참여가 증가된 환경관심과 환경적 행동을 이끄는 결과가 발견되었다(Oh & Ditton, 2008 재인용). 이후 Van & Noe(1981)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촉매제(catalyst)로서 제안했으며, “친환경적 지향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환경태도 및 환경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Bryan(1977)과 Van & Noe(1981)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Katz(1981)의 제물 낚시꾼에 대한 연구와 Mowen *et al.*(1997)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전문화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1981; Mowen *et al.*, 1997). Kauffman & Graefe(1984)는 카누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원 기반에 대한 환경태도가 전문화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며, 특히 더욱 전문화된 카누 참여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환경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Dyck, Schneider, Thompson & Virden(2003)의 연구에서도 더 전문화된 등산가들이 환경훼손이 적은 행동(low impact practice)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습관들에 대해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후 단계까지 포함하여 연구한 Todd, Cooper & Graefe(2001)는 스쿠버다이버의 환경신념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의 단계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문가 후 단계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높은 전문화 수준의 스쿠버다이버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보였으며 최소한의 침해 관리 조치(invasive management actions)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전문가 후 단계에서는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Wellman *et al.*(1982)는 훼손행위에 대한 카누 이용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전문화를 측정하였으나 높은 전문화 집단과 낮은 전문

화 집단 간 훼손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 아주 작은 차이만 발견되었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전문화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각각의 차원이 환경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문화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도 인지적 차원이 환경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전문화에 따른 증가된 환경지식과 기술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Townsend (2000)는 환경적 영향을 더 적게 미치는 경험 있는 дай버들의 높은 환경지식과 의식은 부분적으로 증가된 기술 수준에 의한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적절한 부력 제어기술은 дай버의 몸과 설비가 산호와 부딪치지 않도록 피하게 하는데 유용하며 강한 해류, 좋지 않은 시야와 같은 다이빙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은 해양 환경 접촉을 줄이도록 해준다(Thapa *et al.*, 2006 재인용). Thapa *et al.*(2006)의 스쿠버다이버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친환경 행동의 유형 중 접촉 다이빙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직 전문화의 인지적 차원뿐이었다. 전문화의 정서적 차원 역시 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환·조옥연(2011)의 스포츠동아리 참여 대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하위 차원 중 정서적 요인만이 환경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apa *et al.*(2006)의 연구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의 전문화의 정서적 차원은 환경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강한 예측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일반적 교육 행동(*general education behaviors*)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관련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환경태도(Dyck *et al.*, 2003; Bryan, 1977; McFarlane, 2004; Kauffman & Graefe, 1984; Katz, 1981; Mowen, Williams & Graefe, 1997) 및 환경의식(황선환·조옥연, 2011) 간의 변수를 다루었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적 행동(Thapa, Graefe & Meyer, 2006)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태도는 개인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실제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선행변수로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Azjen, 1991; Tarrant & Green, 1999), 많은 선행연구에서 환경태도는 환경적 행동의도 또는 행동실천 정도와 보통 수준($r = .38 \sim .49$)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Armitage & Conner, 2001). 즉, 전문화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환경태도 및 환경의식은 친환경 행동과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친환경 행동 변수를 적용하고자 하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 논의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의 전문화 단계를 밝혔으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전문화는 일부 연구에서는 함께 증가하는 반면(김현정·김남조, 2011; McIntyre & Pigram, 1992), 일부 연구(Scott & Shafer, 2001; Kuentzel & McDonald., 1992)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캠핑객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어떻게 나타나며 구체적인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국내 캠핑객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적 지향 변수들 간의 관계(Katz, 1981; Mowen *et al.*, 1997; Kauffman, 1984; Todd *et al.*, 2001)가 국내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캠핑객 집단 간 캠핑 활동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의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캠핑이용객을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목적표본추출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표본추출법이 이용되었다. 첫째, 캠핑 경험이 있는 캠핑객에 접근하기 위하여 만 명 이상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동호회 카페 30개에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웹 기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10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둘째, 캠핑장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1월 한달 동안 15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수거된 총 250부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무성의한 답변 19부를 제거한 231부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캠핑객을 하위그룹으로 분류하고, 국내 캠핑객들의 전문화 단계를 밝힌다. 둘째,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전문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캠핑 친환경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이 외에 연구에서 측정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행동이 적절한 설문문항에 의하여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alpha 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표본과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3. 측정항목

설문지 구성은 크게 캠핑전문화, 친환경 행동, 캠핑이용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캠핑전문화는 다차원적으로 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행동적 차원,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세 가지로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전문화 수준을 측정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측정항목을 본 연구 대상인 캠핑활동에 맞도록 변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행동적 차원은 비율척도로,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문항 수	척도	출처
캠핑 전문화	행동적 차원 ¹⁾	4	비율 McIntyre & Pigram(1992)
	인지적 차원 ²⁾	6	23 5점 리커트 McIntyre(1989), McFarlane(2004) Kuentzel & McDonald(1992) Scott & Shafer(2001) 김현정·김남조(2011)
	정서적 차원 ³⁾	13	
친환경 행동	27		Leave No Trace(http://www.lnt.org/)
캠핑 이용 특성	2	명목	-
인구 통계적 특성	5	명목	-
총 문항 수	57		

다음으로, 친환경 행동의 경우에는 캠핑활동에 수반되는 행동을 측정해야 하므

- 1) 캠핑횟수(2문항), 캠핑장비 투자비용(2문항)
- 2) 캠핑관련 기술평가(2문항), 캠핑관련 지식평가(2문항), 지식 및 기술발전 의향(2문항)
- 3) 캠핑의 매력성(7문항), 캠핑의 중심성(3문항), 캠핑을 통한 자기표현(3문항)

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야외활동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 운동인 Leave No Trace(흔적 남기지 않기)⁴⁾가 제시하는 일곱 개의 수칙을 기초로 하였으며, 일곱 개의 원칙과 각각의 원칙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기초로 하여 캠핑활동에서 실천될 수 있는 친환경행동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일곱 개의 원칙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친환경 제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야외활동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사용'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친환경행동 측정 항목들은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실천수준에 대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친환경행동 측정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캠핑이용 특성은 캠핑인원과, 캠핑동반자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수준, 직업에 대해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수준,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캠핑인원, 캠핑동반자로 조사하였다. 총 231명 중 남성 152명(65.8%), 여성 79명(3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6명(45.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91명(39.4%), 20대 19명(8.2%) 순으로, 표본의 대부분은 30~40대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45명(6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학력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월 소득수준은 400~600만원이 88명(38.1%), 200~400만원이 81명(35.1%), 600~800만원이 24명(10.4%), 800만원 이상이 19명(8.2%)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 역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104명으로 45.0%였으며, 전문/관리직 38명(16.5%), 자영업

4)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으로 '흔적 남기지 않기(Leave No Trace)'로 통용된다. 자연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일곱 개의 수칙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캠핑을 포함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에서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 친환경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 개의 수칙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기', '캠핑장 규칙 준수', '쓰레기 처리', '본 것을 그대로 두기', '캠프파이어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다른 탐방객을 배려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32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인원은 4~5명이 112명(48.5%)로 가장 많았으며, 2~3명이 70명(30.3%), 6~7명이 26명(11.3%), 8명 이상이 22명(9.5%) 순으로 나타나 캠핑은 주로 여럿이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분석되었다. 캠핑 동반자는 가족과 함께가 170명(73.6%)으로 나타나, 가족 중심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파악되었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캠핑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152(65.8%)	200만원 미만	17(7.4%)
	여	79(34.2%)	200~400만원	81(35.1%)
연령	10대	5(2.2%)	400~600만원	88(38.1%)
	20대	19(8.2%)	600~800만원	24(10.4%)
	30대	106(45.9%)	800만 원 이상	19(8.2%)
	40대	91(39.4%)	무응답	2(0.9%)
	50대 이상	10(4.4%)	회사원	104(45.0%)
	고졸	47(20.3%)	자영업	32(13.9%)
교육 수준	대재	6(2.6%)	전문/관리직	38(16.5%)
	대졸	145(62.8%)	주부	29(12.6%)
	대학원재학 이상	32(13.9%)	학생	17(7.4%)
	무응답	1(0.4%)	기타	11(4.8%)
캠핑 인원	1명	1(0.4%)	혼자	5(2.2%)
	2~3명	70(30.3%)	친구, 동료와 함께	45(19.5%)
	4~5명	112(48.5%)	가족과 함께	170(73.6%)
	6~7명	26(11.3%)	동호회회원과 함께	10(4.3%)
	8명 이상	22(9.5%)	기타	1(0.4%)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국내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전문화 차원을 통합한 전문화 단일지수(specialization single index)를 산출하였다. 전문화 단일지수는 다차원으로 측정된 전문화를 하나의 단일지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Virden & Schreyer(1988), Wellman *et al.*(1982), Dyck *et al.*(2003)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전문화 척도를 표준화하여 z-score를 산출한 뒤 각각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의 신뢰도를 분석한다. 전문화 항목을 모두 포함한 전체 전문화의 신뢰도는 .903(22개 항목)으로, 정서적 차원의 신뢰도는 .860(12개 항목), 행동적 차원의 신뢰도는 .784(4개

항목), 인지적 차원의 신뢰도는 .855(6개 항목)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각 차원별 z-score의 평균을 산출한 후 각 차원의 구한 평균을 총합하여 각 개별 응답자의 전문화 단일 지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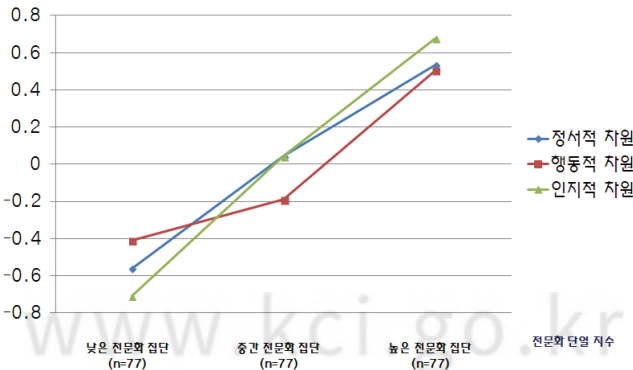
국내 캠핑객의 전문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전문화 단일 지수를 기준으로 총 231명의 응답자를 각 집단별 77명씩 3개의 집단(낮은 전문화 집단/중간 전문화 집단/높은 전문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전문화 단일 지수를 기준으로 집단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타당성을 검증하고 어떤 집단 간 전문화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포함한 집단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이주현·정강환·임명재, 2012). 이 때 집단을 분류하는데 사용한 변수가 종속변수가 되며, 분류된 집단이 독립변수가 되며,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ANOVA가 아닌 MANOVA를 채택해야 한다. 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차원에 차이가 있어 전문화 단일 지수를 기준으로 나눈 집단이 잘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낮은 전문화 집단(77명)은 모든 전문화 차원의 점수가 집단 중 가장 낮으며 전체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캠핑 전문화 연속체 중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는 캠핑객들로서 한해 평균 3.36회의 캠핑을 하며 현재까지 장비 투자비용이 평균 178만원에 이르는 집단이다. 정서적 차원은 3.21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인지적 차원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중간 전문화 집단(77명)은 모든 전문화 항목의 평균값이 낮은 전문화 집단보다는 높고 높은 전문화 집단 보다는 낮은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집단은 한해 평균 6.39회의 캠핑을 하며 현재까지 장비투자비용이 314만원에 이른다. 정서적 차원은 3.75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았으며, 인지적 차원은 보통 수준인 3.06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높은 전문화 집단(77명)은 모든 전문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값보다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해 평균 캠핑 횟수가 16.03회이며 현재까지 장비투자 비용이 986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의 정서적 차원의 평균 점수는 4.18점으로 높았으며, 인지적 차원 역시 3.67점으로 집단 중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화 단일 지수가 세 가지 차원의 전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3〉 집단별 전문화 차이 검증

전문화	집단 분류			전체 평균	F값	사후 검증	
	낮은 전문화 (n=77)	중간 전문화 (n=77)	높은 전문화 (n=77)				
정서적 차원	3.21	3.75	4.18	3.71	119.869***	낮<중<높	
행동적 차원	작년 캠핑 횟수	2.61회	5.53회	17.28회	8.47회	36.638***	낮<중<높
	연간 평균 캠핑 횟수	3.36회	6.39회	16.03회	8.59회	52.184***	낮<중<높
	전체 장비투자 비용	178만원	314만원	986만원	493만원	26.926***	낮<중<높
	작년 장비 투자 비용	69만원	145만원	278만원	164만원	19.101***	낮<중<높
인지적 차원	2.33	3.06	3.67	3.02	144.020***	낮<중<높	
Pillai의 트레이스: 0.779(p<.001) Wilks의람다: 0.265(p<.001) Hotelling의 트레이스: 2.612(p<.001) Roy의 최대근: 2.547(p<.001)							

다음으로는 각각의 전문화 차원이 캠핑객의 전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을 표준화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1). 그래프와 같이 전문화 단일 지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각각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차원의 평균값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세 가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 차원이 서로 관계가 있으며 상호 강화시킨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McIntyre & Pigram, 1992; Scott & Shafer, 2001).



〈그림 1〉 국내 캠핑객의 전문화 발전 단계

각 집단별로 차원의 발달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낮은 전문화 집단에서는 행동적 차원(정서적 차원)인지적 차원의 순서로 행동적 차원의 전문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전문화 집단에서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전문화가 급격이 증가하여 행동적 차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전문화 집단에서는 인지적 차원의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전문화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친환경 행동

친환경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분석에서 요인적재량이 .40 이하인 항목 5개와 요인 적재량이 중복으로 나타난 항목 4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 3개를 본 분석에서 제거하고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5개의 요인은 각 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1: 친환경제품 사용', '요인2: 캠핑장 규칙 준수', '요인3: 개인 쓰레기 처리', '요인4: 사전 준비', '요인5: 타인 쓰레기 처리'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한 친환경 행동의 요인과 비교해 볼 때, '본 것을 그대로 두기', '캠프파이어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다른 탐방객을 배려하기' 4개 개념적 요인이 탐색 요인분석에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쓰레기 처리 요인이 요인분석에서 '개인 쓰레기 처리'와 '타인 쓰레기 처리'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으며, '캠프파이어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기'에서 개념적으로 포함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 피우기'가 '캠핑장 규칙 준수' 요인에 포함되었다.

〈표 4〉 친환경 행동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평균	요인 아이겐 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 (%)	신뢰 계수
요인 1: 친환경제품 사용	3.06				
저탄소 캠핑제품 구입 및 사용	2.96	.755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설비 사용	2.22	.745	4.604	15.522	.744
미생물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세제 사용	3.03	.740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물건 사용	3.67	.618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전기제품 사용	3.40	.426			

요인 2: 캠핑장 규칙 준수	4.47				
지정된 구역에서 캠핑텐트 설치	4.47	.855			
지정된 장소에서 불 피움	4.50	.761	1.995	13.425	.723
지정된 곳에서만 설거지	4.43	.690			
요인 3: 개인 쓰레기 처리	4.23				
쓰레기 분리배출	4.33	.762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분리배출	4.15	.666	1.320	13.279	.710
음식물쓰레기 처리	4.28	.648			
재 처리	4.15	.542			
요인 4: 사전 준비	4.01				
캠핑인원에 맞는 적당량의 음식물 준비	3.89	.808	1.112	11.213	.632
방문할 캠핑장과 지역에 대한 특이사항 및 정보 사전 파악	4.12	.714			
요인 5: 타인 쓰레기 처리	3.32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 같이 수거	3.46	.745	1.023	9.394	.624
타인이 처리하지 않은 개수대 음식물 수거	3.17	.674			
누적분산=62.833%, KMO=.804, Bartlett's test=1020.439(p<.001)					

4.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집단별 친환경 행동 차이분석

캠핑객의 전문화 단일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집단 간 친환경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캠핑장 규칙 준수' 요인을 제외한 모든 친환경 행동 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군집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사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 1인 '친환경제품 사용'은 낮은 전문화 집단과 높은 전문화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높은 전문화 집단이 낮은 전문화 집단보다 친환경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3인 '개인 쓰레기 처리' 행동은 높은 전문화 집단이 낮은 전문화 집단 > 중간 전문화 집단보다 더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준비(요인4)'는 높은 전문화 집단과 낮은 전문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높은 전문화 집단이 더욱 사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타인 쓰레기 처리' 행동에 있어서 중간전문화와 높은 전문화 집단과 낮은 전문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간 및 높은 전문화 집단이 낮은 전문화 집단보다 타인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행동을 더욱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캠핑객 전문화 집단별 친환경 행동 차이분석

친환경 행동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요인1 친환경제품 사용	낮은 전문화	77	2.90	.8193	3.166*	낮은<높은
	중간 전문화	77	3.02	.6757		
	높은 전문화	77	3.21	.8380		
요인2 캠핑장 규칙 준수	낮은 전문화	77	4.37	.5712	2.154	-
	중간 전문화	77	4.46	.5752		
	높은 전문화	77	4.57	.6376		
요인3 개인 쓰레기 처리	낮은 전문화	77	4.03	.6846	9.368***	낮은·중간<높은
	중간 전문화	77	4.20	.5503		
	높은 전문화	77	4.44	.5196		
요인4 사전 준비	낮은 전문화	77	3.82	.7555	4.292*	낮은<높은
	중간 전문화	77	4.03	.6556		
	높은 전문화	77	4.17	.7847		
요인5 타인 쓰레기 처리	낮은 전문화	77	2.90	.8774	13.369***	낮은<중간·높은
	중간 전문화	77	3.40	.8748		
	높은 전문화	77	3.61	.8607		

* p<0.05, *** p<0.001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캠핑객들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캠핑객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전문화 특성을 밝히고, 분류된 하위그룹 간 친환경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친환경 지향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실제 레크리에이션 관리 및 기획에 있어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대한 근거 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행동은 간과한 채 환경 태도 및 환경의식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친환경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존 환경태도 및 의식과 친환경 행동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의 근거에 따라 친환경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 수준에 따른 친환경 행동관리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결과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국내 캠핑객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단일지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분류한 3개 집단 간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Ditton, Loomis & Choi(1992)는 한 활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활동에서 더욱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p.39).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국내 캠핑객의 전문화 단계가 발견되었으며, 응답자의 캠핑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캠핑에 대한 기술발전 및 지식습득과 캠핑에 대한 심리적 애착 역시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이 전문화 집단 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전문화 집단에서는 행동적 차원이 가장 높고 인지적 차원이 가장 낮았으며, 중간 전문화 집단에서는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이 행동적 차원보다 높았으며, 높은 전문화 집단에서는 인지적 차원이 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캠핑에 처음 참여하는 초보 캠핑객들은 캠핑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이에 비해 캠핑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등 행동적 차원의 발달이 두드러지다가,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며, 가장 높은 전문화 수준에 다다를 때 캠핑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다른 차원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초보자들은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한 독특함을 희망하거나(McIntyre & Pigram, 1992), 장비가 기술 또는 지식의 부족함을 보상하기(Bryan, 1977) 때문에 이와 같이 초보자일 때 장비 투자와 같은 행동적 차원의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캠핑객 집단 간 캠핑 활동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결과, 캠핑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친환경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더 전문화된 캠핑객일수록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개인 쓰레기 및 타인 쓰레기를 처리하며, 사전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캠핑이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캠핑객들이 전문화됨에 따라 더욱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지향을 띄게 된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Dunlap & Heffernan, 1975; Thapa, 2010). 또한 더 전문화된 집단에서 공유하는 레저소셜월드(Leisure social world)의 가치 및 규범에 따라 더욱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캠핑장 규칙 준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친환경 행동 요인의 평균값과 비교해 볼 때, 캠핑장 규칙 준수 요인의 평균값은 4.47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캠핑객들은 전문화 수준과는 상관없이 캠핑장의 규칙준수에 매우 순응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캠핑장의 관리 및 기획에 있어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친환경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캠핑객들의 전문화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전문화 수준이 낮은 단계의 이용자들에게 대한 캠핑장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를 높이는 집중관리전략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문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캠핑장에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및 캠핑 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전문화된 캠핑객들이 친환경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비슷한 레저소셜월드를 공유하는 전문화 집단의 가치와 규범, 환경태도 등의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고동우(2006). 관광자의 친환경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위협소구 환경광고의 영향. 『관광학연구』, 30(2), 139-160.
- 김현정·김남조(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세분화 및 주행환경 선호도 분석. 『관광학연구』, 36(6), 253-274.
- 송영민(2010).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제약과 촉진의 의미 분석: 낚시 채널(F-TV) 전문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3), 287-260.
- 윤현희·이진호(2013). 농촌관광마을의 지각된 가치가 장소애착과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관광연구』, 20(1), 53-71.
- 이주현·정강환·임명재(2012). 연구논문(研究論文): 방문객 체험영역에 따른 관광축제 시장세분화: Pine & Gilmore 의 체험영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2), 81-100.
- 황선환·조옥연(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동아리 참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419-427.
-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 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ryan, H.(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174-187.
- Chipman, B. D., & Helfrich, L. A.(1988). Recreational specializations and motivations of Virginia river anglers. *North American Journal of*

Fisheries Management, 8(4), 390-398.

- Cottrell, S. P.(2003).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on general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among recreational boaters. *Environment and Behavior*, 35(3), 347-375.
- Ditton, R. B., Loomis, D. K., & Choi, S.(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conceptualization from a social worlds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1), 33-51.
- Dyck, C., Schneider, I., Thompson, M., & Virden, R.(2003). Specialization among mountaineers and its relationship to environmental attitud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1(2), 44 - 62.
- Goldstein, N. J., Cialdini, R. B., & Griskevicius, V.(2008). A room with a viewpoint: Using social norms to motiv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hote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3), 472-482.
- Halpenny, E. A.(2010).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nd park visitors: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09-421.
- Hares, A., Dickinson, J., & Wilkes, K.(2010). Climate change and the air travel decisions of UK tourist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8(3), 466-473.
- Hergesell, A., & Dickinger, A.(2013) Environmentally friendly holiday transport mode choices among students: The role of price, time and convenienc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4), 596-613.
- Kauffman, R. B., & Graefe, A. R.(1984,). Canoeing specialization, expected rewards and resource related attitudes. *In National River Recreation Symposium Proceedings*.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629-641.
- Katz, M. S.(1981). An assessment of intra-group differences in conservation attitudes and environmentalism as a function of activity involvement among fly fisherm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42(2). 853.
- Kuentzel, W. F., & McDonald, C. D.(1992). Differential effects of past experience, commitment, and lifestyle dimensions on river use specializ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69-287.
- McFarlane, B.(2004).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site choice among vehicel-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26, 309-322.

- McIntyre, N., & Pigram, J. J. (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examined: The case of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14(1), 3-15.
- Mowen, A. J., Williams, D. R., & Graefe, A. R.(1997). Specialized participants and their environmental attitudes: Re-examining the role of “traditional” and psychological specialization. *General Technical Report-Northeastern Forest Experiment Station, USDA Forest Service*. No. NE-232, 134-138.
- Oh, C. O., & Ditton, R. B.(2008). Us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to understand conservation suppo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4), 556-573.
- Scott, D., & Shafer, S.(2001).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3), 319-343.
- Steg, L., & Vlek, C.(2009). Encouraging pro-environmental behaviour: An integrative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9(3), 309-317.
- Stern, P. C.(2000). New environmental theories: Toward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07-424.
- Sivek, D. J., & Hungerford, H.(1990). Predictors of responsible behavior in members of three Wisconsin conservation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2), 35-40.
- Tarrant, M., & Green, G.(1999). Outdoor recreation and the predictive validity of environmental attitudes. *Leisure Sciences*, 21(1), 17-30.
- Thapa, B.(2000). *The Association of Outdoor Recreation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Forest Recreationists*.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_____, B., Graefe, A. R., & Meyer, L. A.(2006). Specialization and marine based environmental behaviors among SCUBA div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8(4), 601-615.
- _____, B.(2010). The mediation effect of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41(3), 133-150.
- Todd, S. L., Cooper, T., & Craefe, A. R.(2001). Scuba diving & underwater cultural resources: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beliefs, ascriptions of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preferences based on level of

-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2000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131-140.
- Van Liere, K. D., & Dunlap, R. E.(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2), 181-197.
- _____, K. D., & Noe, F. P.(1981). Outdoor recreation and environmental attitudes: Further examination of the Dunlap-Heffernan theses. *Rural Sociology*, 46(3), 505-513.
- Viriden, R. J., & Schreyer, R.(1988). Recreation specialization as an indicator of environmental preference. *Environment and Behavior*, 20(6), 721-739.
- Wall, G.(1995). General versus specific environmental concern a Western Canadian case. *Environment and Behavior*, 27(3), 294-316.
- Wellman, J. D., Roggenbuck, J. W., & Smith, A. C.(1982).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norms of depreciative behavior among canoe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323-340.
- Wynveen, C. J., Connally, W. D., & Kyle, G. T.(2013).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marine protected area: The cases of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nd the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31(2), 28-49.
- 국민일보(2013.06.11). “캠핑명소 소남이섬 배바위 폐쇄.. 더럽혀진 캠핑 명소.” 신민우.
- 이데일리(2014.01.16). “[캠핑&아웃도어] 거침없는 캠핑시장..‘올해 6,000억 규모 전망’.” 장영은.
- Leave No Trace(<http://www.lnt.org/>)

2014년 2월 11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4년 4월 1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4년 5월 8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료